달빛 따스한 국악세상으로

'제4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전북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 일대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제4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개최
안숙선 환갑 기념 제자들과 감동무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신수정)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이 주관하는 '제4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전북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 일대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특히 올해는 본 축제의 예술거장 안숙선 명창이 무대 데뷔 환갑(61주년)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뜻깊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불후의 명곡〉에서 최종 우승한 소리꾼 이봉근을 비롯해,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에서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나니, 차세대 명창의 반열에 들어선 서정민과 백현호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안숙선 명창과 함께 멋진 판소리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안숙선가야금병창보존회, 한예종 전통예술원 성악과 재학생이 안숙선 명창의 무대 데뷔 환갑을 축하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제4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에는 거문고 산조 예능보유자 김영재(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김영재 거문고산조) 명인을 비롯해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한예종 명예교수), 가야금 명인 이지영(서울대 교수), 동초제 판소리 명창 송재영(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장), 한울림 예술단, 한누리무용단 등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 명무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즉흥이 작품으로 빛나는 국악앙상블 바라지, 젊은 연희꾼들인 현승훈·김소라·허창열·주영호의 연희본색, 전통창작의 연희공방 음마갱깽, 악단광칠, 다올소리, 소리꾼 박인혜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젊은 국악인들의 매력적인 무대가 준비됐다.

서울에서 남원까지 오는 관객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축제기간 내내 매일 오전 8시 양재역(예정)에서 남원으로 출발, 저녁 9시에 남원에서 서울로 왕복 운행한다. 또한 축제 참가 사전등록접수를 하면 축제기간 동안 석식, 축제패키지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 홈페이지(www.art-village.org)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축제는 올해 4년차에 접어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상 속 문화와 예술이 마을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2007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문화예술, 인재양성, 의료지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남원시와 전북도는 4년째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를 후원하고 있으며 강복대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국악의 본고장 남원의 정취를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승인

2020년까지 80억 들여 관련장비 구축 돌입

순창군의 발효미생물산업을 육성해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4월 현장평가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순창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80억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고 배양 및 생산 등 관련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에 돌입한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발효미생물산업화 및 발효식품제조업체 공급활성화 등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종균·반제품원료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순창군 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내 부지 3,714㎡, 지상 2층 연면적 1,650㎡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미생물산업을 군의 성장산업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산업화를 진행해온 순창군 전략에 잘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순창은 전통발효식품에서 토종발효미생물을 발굴하는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미생물 4만여 균주를 확보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최적지로 뽑혀 왔다.

관련 시장도 무궁무진하다. 발효미생물 소재 수입에 6,500억원, 장류 주류 미생물 440억원 등 총 7,00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사업이 완성되면 발효종균 상품화 및 사업화를 위해 종균산업 선도기업 및 스타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국내 100개가 넘는 기업에 맞춤형 발효미생물공급, 발효미생물산업화 기술이전을 통해 수입미생물 시장을 대체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3월에는 발효미생물산업화 관련 2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도 진행해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최종승인으로 순창군의 미생물산업화 육성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면서 "전라북도의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벨리 조성과 연계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춘향제 노인복지사업 홍보관 운영 성료

남원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성황리에 개최된 제88회 춘향제기간동안 '함께 만들어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남원!'이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사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홍보하고, 조부모 및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 전달을 위한 '부채꾸미기 체험' 운영,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을 통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정리하여 자체적으로 리플릿을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남원시를 대표하는 노인여가활동의 장소인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만든 도예작품 및 수제초콜릿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솜씨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지역 28일부터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적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급속히 번진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해 난괴예찰 결과 80% 부화될 5월 28일~6월 5일을 방제 적기로 잡고 재배지와 주변산간을 함께 방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알 내부 발육은 완료되었으나 부화직전 최근 잦은 강우와 저온의 영향을 받아 남원지역 첫 부화시기는 5월 19일~21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첫 부화일로부터 10~20일 사이를 방제적기로 분석한다. 2010년에 처음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은 아열대 노린재목 곤충으로 복숭아, 배, 사과, 산수유 등 과수나무의 줄기와 잎을 흡즙하여 말라죽게 하거나 분변으로 농산물의 상품성과 수량을 감소시키는 유해 곤충이다.

예찰결과 지난겨울 저온으로 난괴개체수는 줄었으나 전국적으로 발생장소는 늘어나 올해도 전역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시 반려동물 홍보 캠페인

남원시는 지난 5월 18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라북도와 합동반을 편성하여 현수막 게시와 홍보전단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홍보 캠페인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할 법적의무로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조치 미준수 적발시 과태료가 일괄 상향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는 내용과 같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에티켓을 홍보했다.

또한 홍보한 반려동물 에티켓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길에서 반려견을 마주했을 때 큰소리로 겁주지 않기, 때리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너무 빤히 바라보지 않기 등과 같은 일반인이 지켜야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순창군은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만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된다.

단, 아동수당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사전신청은 제외) 지급이 가능하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주민맞춤형 물리치료 큰 호응

상시 운영, 개인별 맞춤처방

임실군보건의료원(원장 김형진)이 주민 맞춤형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 하에 개인별 맞춤 물리치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임실군에 따르면 물리치료를 받을 때 자가진단으로 증상에 맞지 않는 물리치료를 할 경우,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에는 체외충격파치료기, TENS(경피전기신경근전기자극기), 갑섭파전류치료기, CPM(전동식정형운동장치)등 최신식 물리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위 조직과 뼈를 활성화시키는 체외충격파치료기, 전류로 피부의 말초신경 작극 통증 치료에 TENS, 근육의 수축과 이완, 혈류량증진, 통증완화, 부종억제등의 효과가 있는 갑섭파전류치료기, 수술후 해당부위의 관절구축 및 고정등의 후유증 예방에 필수인 CPM 장비로 해당 질환에 적합한 물리치료를 해줄 수 있다.

물리치료실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며, 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063-640-332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